

# 지도사업 강화로 경쟁력 있는 조합 육성

□ 취재/김종준 기자

**해**마다 축협조합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축협조합의 지구 노력과 축협중앙회의 지원만으로는 축협조합 경영 개선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조합만을 육성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육성조합 1차 선정에서는 업종조합중 20개 조합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후발주자인 충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문달)이 1위로 선정되어 주목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북양계조합의 현황과 육성조합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충북양계조합은 충주, 제천, 괴산, 음성지역의 양계인들이 뜻을 합쳐 '94년 1월에 창립 총회를 갖고 6개월 뒤인 7월에 농림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으로써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조합원 수는 125명이고 사육 규모는 4,700천수로 육계를 사육하는 생산자 조합이다.

'96년 11월 축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하였고 같은해 12월에 청사를 현 충주시 연수동

으로 신축·이전하였다.

'97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경제업무와 신용업무를 겸비하고 있다.

'95년부터 계열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사양가 90개 농가와 계약사육하고 병아리는 4개 부화장에서, 사료는 3개 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닭출하물량은 조합자체에 도계장이 없기 때문에 3곳의 도계장과 계약을 맺고 도계비용만 지불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도계된 물량을 인천직영사업소와 도계납품처 5곳에 유통하고 있다.

한편 생계납품처 5곳을 두어 출하 물량이 적체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충북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미진하기 때문에 주관매처는 경기·서울지역이다. 조합원 농가 사양관리 지도는 지도계에서 총괄하는데 첫째 종계장을 관리하여 우수한 종계를 입추관리하고 사양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백신을 통한 품질 좋은 병아리를 공급하고 둘째 공동방역단을 운영함으로써 질병 차단을 철저히 하고 있고 셋째 사양기술을 전파하고 넷째 혈청을 채취하여 가축질병연구소에 의뢰하는 일을 한다.



△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충북양계협동조합 전경

향후 육성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조합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합 운전자금 17억원을 투자하여 병아리 및 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5%의 생산비를 절감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종계 16만수를 확보하여 외부에서 구입하는 병아리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을 씻고 안정적으로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지역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생산물을 축협달래치킨이란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98년에 의정부에 도계품 직매장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가공품을 체인화하여 조합원의 생산품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목적출자를 증액하고, 사육성적에 따른 지급금액의 4~8%를 출자하도록 중용함은 물론 청주와 제천 지역에 지소를 설립하여 '99년까지 조합의

예수금 잔액이 총 300억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양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인원을 충원하고 조합자체에 동물병원을 운영하여 동물진료, 질병상담, 질병원인분석, 동물약품을 구비하고, 특히 실험실에서 혈청검사, 약제반응검사, 잔류물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한 진단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보다 위생적인 육계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문달 조합장은 육성자금지원으로 조합운영에 활기를 띠겠지만 조합사업은 항상 조합원이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합원 간담회, 전이용대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조합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충북양계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의 자구의 노력만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타조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양계**